

쿠테타 이후 터키의 정치 및 경제 전망

이철원 전문연구원
KIEP 구미·유라시아본부 유럽팀

■ 주요 내용

- (동향) 지난 7월 15일 군부 쿠데타가 6시간 만에 진압된 이후, 터키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외환·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짐.
- (배경) 이슬람 전통을 중시하는 정의개발당(AKP)의 장기집권으로 군부에서 점차 세력을 잃어가던 세속주의 세력에 의해 현정권에 반발하는 쿠데타 시도가 있었으나, 6시간 만에 진압됨.
- (전망) 향후 정치적으로는 AKP의 치세가 더욱 강화되면서 미국, EU 등 서방과의 외교에 있어 다소의 마찰이 예상되며, 경제적으로는 외교적 마찰과 관련하여 시장 불안심리 확대 및 외자 유출, 관광산업 타격 및 내수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전망됨.



KIEP 대한경제정책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
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
TEL 044-414-1076 E-MAIL emerics@kiep.go.kr
<http://www.emerics.org/> <http://www.kiep.go.kr/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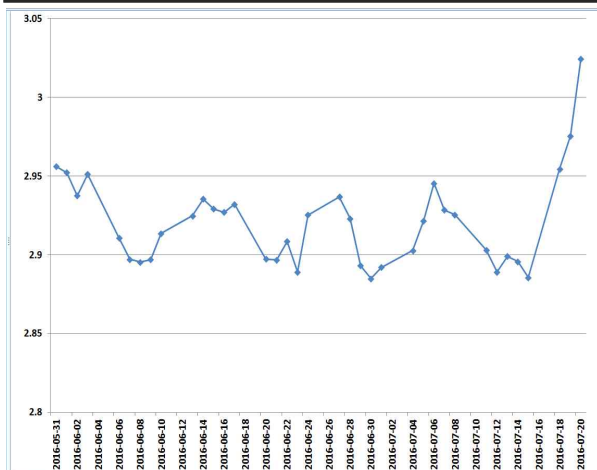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제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
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1 이슈 현황

☐ 지난 7월 15일 군부 쿠데타가 6시간 만에 진압된 이후, 터키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외환·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짐.

- 쿠데타 이후 시장의 불안심리 확대로 리라화 가치와 주가지수가 급락하는 등 터키 외환·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됨.
 - 대체로 2.85~2.95 범위 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던 달러 대비 리라의 환율은 쿠데타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여 7월 20일에 3.0244를 기록함.
 - 7월 14일 82,589.76을 기록하였던 터키 주가지수 ISE 100은 쿠데타 당일부터 급락하기 시작하여 7월 20일에는 74,902.88로 쿠데타 전 대비 9.3% 하락함.

그림 1. 달러화 대비 리라화 환율



자료: Bloomberg

그림 2. 터키 주가지수(ISE 100) 추이

84000
82000
80000
78000
76000
74000
72000
70000

자료: Bloomberg

- 중앙은행을 비롯한 관련 터키 당국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및 단기 정책금리 인하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.
 - 지난 7월 20일 터키 중앙은행은 시장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은행과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완화를 위해 주요 정책금리 중 하나인 익일물 대출금리를 0.25% 포인트 인하한 8.75%로 설정함.

2 원인 분석

☐ (배경) 이슬람 전통을 중시하는 정의개발당(AKP)의 장기집권으로 군부에서 점차 세력을 잃어가던 세속주의 세력에 의해 현정권에 반발하는 쿠데타 시도가 있었으나, 6시간 만에 진압됨.

- 에르도안의 AKP는 90% 이상이 이슬람 수니인 터키에서 기존 정당에 비해 이슬람 전통을 중시함으로써 확고한 지지기반을 구축, 현재 14년째 집권중임.
 - AKP의 당수 에르도안은 3기 연속 집권으로 총리직을 수행하였으며, 총리직의 3연임 제한으로 최근에는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 선거에 당선,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음.
- 군부, 법조인, 언론, 학계 등이 전통적으로 터키에서 세속주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왔으며, 최근 AKP의 장기집권으로 이들 세력이 많이 위축되었음.
 - 이번 쿠데타는 과거 성공한 쿠데타에서 군부 전체의 성명을 통해 미리 예고하고 시도한 것과는 달리 군부 내에서도 일부 세력에 의해 시도된 것으로 알려짐.

3 전망과 시사점

☒ (전망) 향후 정치적으로는 AKP의 치세가 더욱 강화되면서 미국, EU 등 서방과의 외교에 있어 다소의 마찰이 예상되며, 경제적으로는 외교적 마찰과 관련하여 시장 불안심리 확대 및 외자 유출, 관광산업 타격 및 내수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전망됨.

- 사형제도 부활과 관련하여 EU와의 마찰이 예상되며, 이번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된 재미 인사의 신변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마찰도 불가피함.
 - 지난 7월 20일 국가비상사태(3개월)를 선포한 터키 정부는 2004년 EU 가입 협상 시작과 함께 선결조건으로 폐지되었던 사형제도의 부활을 예고함.
 - 현재 터키와 미국은 이번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재미 이슬람학자 귄렌의 신병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음.
-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경제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향후 터키 경제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서방과의 외교마찰 심화시 외자유출, 관광산업 타격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.
 - 지난 20일 S&P는 'BB+'였던 터키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은 'BB'로 하향 조정하여 투기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신용등급 전망도 '부정적'으로 설정하였으며, 지난 19일 무디스도 터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.
 - 터키 GDP의 약 4%, 전체 취업인구의 7%를 점하고 있고 연관 산업을 포함하면 GDP 기여도가 17%에 달하는 터키의 관광산업은 최근 잇따른 테러와 이번 쿠데타 발생으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임.
- 다만, 터키와 서방 간 외교마찰은 단기적으로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호간 협력 필요성과 해외요인에 취약한 터키 경제의 특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상존함.
 - 터키는 EU 입장에서 시리아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이고 미국에는 IS 공습을 위한 공군기지 제공은 물론 러시아.CIS 및 중동 최전방의 나토 회원국임. **EMERiCs**

표1. 터키의 최근 주요 경제지표

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
실질GDP증가율 (%)	0.7	-4.8	9.2	8.8	2.1	4.1	3.0	3.9	3.0
명목GDP (10억 달러)	730.3	614.6	731.1	774.8	789.1	824.0	799.2	719.1	721.9
명목1인당GDP (미달러)	10,379	8,627	10,135	10,605	10,543	10,810	10,309	9,142	9,067
소비자물가상승률 (%)	10.4	6.3	8.6	6.5	8.9	7.5	8.9	7.7	7.3
정책금리 (%)	15.00	6.50	6.50	5.75	5.64	4.50	8.25	7.50	7.00
재정수지 (GDP대비 %)	-1.8	-5.5	-3.6	-1.4	-2.0	-1.5	-1.0	-1.2	-2.5
인구(백만 명)	70.36	71.24	72.14	73.06	74.85	76.22	77.52	78.67	79.62
실업률 (%)	10.0	13.0	11.1	9.1	8.4	9.0	10.0	10.3	10.2
경상수지 (GDP대비 %)	-5.5	-2.0	-6.2	-9.7	-6.2	-7.8	-5.8	-4.5	-4.4
환율(LCU/US\$, 기말기준)	1.53	1.49	1.54	1.91	1.79	2.14	2.32	2.91	3.14

주: 2015년까지 실측치, 2016년은 추정치.

자료: Global Insight(Last updated: 15 Jun 2016)

출처

Oxford Analytica 등 국내외 각종 언론자료 종합